

한국창조과학회 일본서 '성경과 과학 컨퍼런스' 개최

세미나와 함께 일본현지의 창조과학 탐사지 탐방

일본 외키야마에서 창조과학 캠프인 '성경과 과학 컨퍼런스' (참고 사이트 www.genesisjapan.com)가 최근 개최됐다.

일본의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연합해 개최한 동 행사는 일본복음화를 위해 한국창조과학회 이은일 회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과 이경호 교수(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가 강사로 섬겼다.

일본인들 국민성이 이성적이고 지성이 먼저 변해야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 복음화 전략에 창조과학 콘텐츠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해 왔다. 성인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세미나와 함께 일본 현지의 창조과학 탐사지를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은일 회장은 '인체 창조의 비밀'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예방의학과 환경의학을 연구하는 의사이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인체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이 얼마나 조화롭게 설계됐는지 이야기하고, 그러한 조화요소를 깨뜨린 결과 나타난 질병과 환경오염을 회복하는 것에 빛대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화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강하게 선포했다.

이경호 교수는 '노아의 대홍수 방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특히 이경호 교수의 경우 연구원 시절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직접 실현해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 비율이 가장 우수한 안전성을 가진 비율임을 밝힌 담당 연구원이었기에 노아 방주의 안전성이 노아홍수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임을 강의를 통해 확실하게 증거했다.

한편 한국창조과학회와 일본 창조과학 지역자들과 학술적 교류를 가진 것은 창조과학회 초청기 김영길 초대 회장 때부터로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창조과학자인 미사미 우사미 박사 등과 친밀한 교류를 가졌었다.

그러나 일본은 교회가 창조과학 사역을 든든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창조과학 단체들도 지역별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온누리교회가



시작한 새로운 문화선교 '리브소나타'였다. 故 하용중 목사가 일본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 2007년 시작한 리브소나타는 대형 문화집회를 통해 일본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키고, 지역별로 일본 교회가 연합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일본 CGNTV를 함께 시작해 일본 교회의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던 목회자들이 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리브소나타'가 진행될 때 교회 부흥 세미나와 함께 가정세미나 또는 창조과학 세미나가 진행됐다. 무엇보다도 故 하용중 목사가 일본 창조과학 지역의 부흥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전달해 Love Creation이라는 일관된 중심의 창조과학 지역단체를 만들고 지원하였다.

이 Love Creation이 중심이 돼 일본의 창조과학 단체들의 연합인 Japan Creation Forum(이하 JCF)이 2014년 창설되고, 초대 회장에 Genesis Japan 대표인 우사미 미노루 목사가 취임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2014년 12월 JCF와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고 2016년 아시아 창조과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일본 창조과학 세미나를 섬기는 것은 온누리교회가 일본 교회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리브소나타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직접 일본

Genesis Japan이 주최하는 '성서와 과학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성서와 과학 컨퍼런스'는 성인 및 청소년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와 일본 내 격년의 현장을 직접 탐사하는 캠프 형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동경에서 2시간 떨어진 사이타마 켄지부에서 열린 '성서와 과학 컨퍼런스'에서는 이은일 교수가 '안락한 죽음과 나의 창조과학연구', 정우성 사사의 '한국 차세대 창조과학 사역'에 대해 발표해 일본 창조과학 지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다.

2014년에는 일본 JCF와의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면서 '성경과 현대과학' 세미나를 동경 요도바시교회에서 진행했다. 일본 측 강사로 안도 가즈코 교수와 우사미 미노루 목사가 한국 측 강사로 한윤봉, 최승철, 이은일 교수가 섬겼다. 강의 내용은 한윤봉 교수 '과학법칙과 창조주', 최승철 교수 '기존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기 위한 창조과학 5가지 정보', 이은일 교수의 '가려진 진실 공룡 이야기'.

올해는 이번 '성경과 과학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앞서 열린 창조과학 특별집회(오사카 온누리교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창조과학회 02-419-6465
creation@creationkr

사설

남북통일, 기도만이 희망이다!!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부터 8월 24일 자정까지 1.2차 도합 41시간 동안 저 휴전선 관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기간은 공교롭게도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부터 주일 23일을 지나 월요일 자정에야 협상이 끝났다.

온 국민들이 숨을 조리며 회담이 잘 타결되어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이 사라지기를 고대했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정부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 집단의 소위 인민군총정치국장 황병서와 통일선전부장 겸 노동당 비서 김양건 등 4인 회담 결과 나온 합의 사항은 '북측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인한 군인들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합의를 끌어내느라고 남북의 최고위급 4인이 날 수로는 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더니 한편으로는 미흡하지만 남북합의로 극한 대립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휴전선 군사분계선 남방에 물레 침투해 '목함 지뢰'를 매설하고 그곳을 수색하던 우리 국군병사 하재현 하사(21)가 양쪽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당하는 치명상을 입었다. 김정원 하사(23)는 오른쪽 아래 다리가 절단 되는 치명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청춘이 만리' 같은 아름다운 연령이다. 다리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비합당한 살상 행위에 대해 조금도 뉘우침이 없음을 고사하고, 북에 돌아가서는 왠 '이번 북남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였다'고 '남측이 사죄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사생활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북측의 황 김 두 사람은 그 기나긴 시간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비굴함도 느끼지 못하고, 한사코 잡아 댈 수 없었을 것이다. 배후에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군주 김정은이 버티고 있어 협상이 잘못 되면 처형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김정은을 포함하여 모두가 한 통속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자들과 마주 앉아 우리 대표들이 '우리는 모른다'고 잡아떼는 쪽두라시들에 맞서

심장의 피가 거꾸로 솟음을 달래며, 무려 41시간을 버티며 "유감"이란 한마디라도 얻어내려고 인내를 거듭했으니 그 기막힌 심장이야 어찌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비로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기도 후원이 고 주님의 안보하심이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말렉이 이겼다(출17장). 남북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던 그 토요일과 주일을 거치는 긴 긴 밤 동안,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아론과 출처럼, 우리 회담 대표들을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기어코 저 무지배한 사회주의 조선노동당 괴수들의 거짓과 위선과 비인간성을 이기고 사죄와 재발방지와 젊은 국군 병사들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중상을 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유감" 운운하는 회담 결과가 나와 많은 유감이지만 실제로 분명히 인지하고 저들의 계약에 따서는 능력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라를 지켜주시길 것을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무슨 배신을 당할지 모르지만 다시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우리 대통령이 중국 국가 원수와 나란히 서서 중국군 열병식을 사열하며 한·중 우의를 다지는 진풍경도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들은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과정과 결과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리라"(단 4:1-3)

국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 후원이 시급하다. 어느 때 임지 모르는 한반도의 통일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남북의 통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도적질"로 도둑질할 것이 틀림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의 그 "때"를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CTS평생교육원, 특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홈바리스타, 쿠키플레이, 캘리그래피 과정

창사 20주년을 맞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 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CTS 평생교육원'의 특별한 교육과정 △홈바리스타 △쿠키플레이지도 △캘리그래피 과정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내 바리스타 1호로 알려진 이동진 가배두립 대표가 이론과 실습 강의를 진행하는 '홈바리스타 과정'은 9월 10일, 11일, 17일 3일간 진행되며, ▲커피학개론 등 이론교육 ▲실무교육 ▲바리스타 자격시험(허가)으로 이루어져 있다.(수강료 재료비 포함 12만원, 자격증시험응시료 별도)

오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에 진행되는 '제2기 쿠키플레이 지도자교육과정'은 요리활동과 아동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놀이수업으로,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오감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적인 부분을 터치해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센터 및 교회 문화교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수강료 재료비 포함 15만원, 자격증시험응시료 별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캘리그래피 과정'은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젊은 층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한성욱 캘리그래피가 강사로 나선다.(수강료 재료비 포함 23만원)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www.ctstv)나 CTS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02-6333-1166)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청 : ① 센터(안양성전 기독교연합신학연구원 건물 2층)에 직접 신청
②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③ 본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기독교신학연구원 건물 2층)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